

Grace

은혜 2019. 9

vol. 200 / SEPTEMBER
강남중앙교회

Contents

- 2p. 여름산상부흥성회 3p. 산상부흥성회 간증(전찬자, 서정자, 국다해, 강대림, 배연수) / 침례식 간증(엄민재, 조성희)
- 4-5p. 초등처 캠프 : '최고의 예배' 6p. 153감사대행진 진행상황 / 인스타그램 현황
- 7p. 153감사대행진 편지글(국태환, 최정수, 최예주, 하은숙, 김태수) / 감사편지 봇글씨(이정수)
- 8p. AMAZING AUGUST 설교요약 9p. 국내선교편지(박진웅) / 해외선교편지(정 Y.S)
- 10p. 우리가 주의 일꾼 : 기쁨과 감사로 뜨겁게(류호정) / 장년교육 제자훈련
- 11p. 새가족 간증(김윤정) / 새가족 정착(윤현) 12p. 광고 : 쓰임 / 100만 시간 기도표



Worshiping Church :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 돋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 제자삼는 교회



2019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



| 피영민 목사 |



| 최병락 목사 |



| 이은상 목사 |



강남중앙교회(최병락 목사)의 자랑인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가 2019년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행2:2)를 주제로 성대히 개최됐다. 2019년 7월 29~31일 3일간 이어진 성회는 피영민 2대목사와 최병락 담임목사,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가 강사로 나서 차례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과 부흥의 영이 충만한 성회였다는 평가다. 특히 최병락 목사가 강남중앙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개척해 설립된 세미한교회와 형제교회 협약을 맺은 후 처음 맞이한 양수리수양관 여름산상부흥성회는 동역과 동행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의 시간이 됐다.

최병락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불 시리즈' 설교로 은혜를 나눴다. 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아브라함-약속의 불(창15:1~21) △모세-소명의 불(출3:1~12) △엘리야-응답의 불(왕상18:36~38) △이사야-파송의 불(사6:1~13)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강력한 소명을 주실 때 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을 소망케 했다.

또한 유아체와 초등체 어린이집회가 별도로 운영되어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도 온전히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낮 시간 동안 주차장을 수영장으로 변신시켜 '양수리 워터파크'를 개장해 가족단위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즐거움과 은혜를 겸비한 집회에는 안산동산교회와 우리들교회, 초원교회, 생명감리교회 등 전국 50여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1800여명이 참석하여 불같은 찬양과 폭발하는 기도로 영성을 충전했다.

크리스찬연합신문 (2019. 07. 31 임경래 기자 '최병락 목사,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의 '불 시리즈' 말씀 선포') 기사 중 발췌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

전찬자 권사 | 29일 저녁 집회에 피영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스스로 무능을 고백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되면 “따지라”고 까지 하셨다.

30일에는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복, 땅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후손이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마지막 날 이은상 목사님은 살다가 인생이 꽉 막힐 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믿음 속에 삶의 지침을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서정자 권사 |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80세가 가까운 이 나이가 돼서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십오년 만에 수양관에 올라와서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다. 목사님의 말씀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 문을 열고 폭포수 같이 영감을 줄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걸 지켜주마’

오늘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나에게도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국다해 청년 | 매년 두 번의 산상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 여름산상성회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피영민 목사님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쁨으로 우리교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최병락 담임 목사님, 그리고 SMT를 함께 가지 못해 너무나 뵙고 싶었던 이은상 목사님까지. 이 세 분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현재의 제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고, 미래의 제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대로 성령의 새바람이 제 삶에, 우리교회에, 한국 땅에, 온 세계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립 원로장로 | 먼저, 가뭄 극심한 양수리에 비를 내려달라는 성도들 합심 간구에 성회에 맞춰 계곡 가득 맑은 물 펄펄 내려가게 하신 응답으로 애와 침례식을 거행한 은혜, 너무도 감사했다. 성도와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부흥이 꼭 필요한 시기에 ‘성령의 새바람’ 주제는 참 좋았다. 사모했던 대로 강사 목사님들 능력의 말씀은 시간시간 깨달음과 감동의 연속이었다.

‘참 부흥’은 원산, 평양 대부흥에서 증명되었듯 진정의 회개, 대각성 위에 이루어짐을 피영민 목사님 말씀으로 새삼 깨달았고, 기도응답이 안될 때 ‘하나님께 따지라’고 하신 말씀에 탄복했다. 성경 속의 ‘불’ 시리즈의 ‘언약의 불’은 자자손손 흘러가는 정거장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교회에도 1대, 2대, 3대 목사님으로 흘러 계속되어짐을 감사드린다.

하찮은 떨기나무도 하나님 손에 불잡히매 꺼지지 않는 불이 되듯, 광야 40년 버린바 된 듯한 연단을 거쳐 민족구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세, 까마귀의 공급, 과부의 마지막 양식으로까지 연명하던 구차한 삶에서도 작은 기적과 간증들이 쌓여 갈멜산 1:850의 대적과 대결하던 제단에 대승리의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 왕의 권력을 업고 일하다 그 권력 사라지자 비로소 잊었던 하나님을 찾은 성전회복을 통해 소명을 깨닫는 이사야의 ‘파송의 불’들에 대한 최병락 담임목사님 말씀에 모두의 심령이 녹았다. 특히 압권은 ‘까마귀의 입장’ 되어보기였다. 미물이지만 입에 문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고 끝내 이룬 성실은 사명자의 귀감이리라.

‘모든 길이 막힐 때’ 사도바울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에 말씀이 들리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성령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이은상 목사님 말씀도 감동이었다.

지금은 미약할지도라도, 참 회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 중심으로, 광야 과정들을 이겨내며 일상에서 작은 간증들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위대한 인물들이 장차 우리 교회에 수 없이 나오리라 믿고 기도한다. 주님! 성령의 새바람, 우리 교회에 계속 불어주소서!

배연수 성도 | 아이를 낳은지 3일 만에 아침 밥상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교회 다닐 생각을 하지 못한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잃고 나서야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2년을 열심히 다니다 다시금 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300좌가 넘는 산을 다닐 만큼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의 나타나셔 채찍을 들으시면서 ‘기회를 놓친만 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삶을 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채찍이 무서운 마음이 들어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만 가면 잠이 와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울 주변의 교회를 어찌나 많이 옮겨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나갔지만 이리저리 저리지도 못하는 저의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강중침 최병락 목사님 설교에 눈을 떴고 지금은 눈물로 설교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양수리 수양관 계곡물에 침례를 받고 이전 삶은 죽고 새로 태어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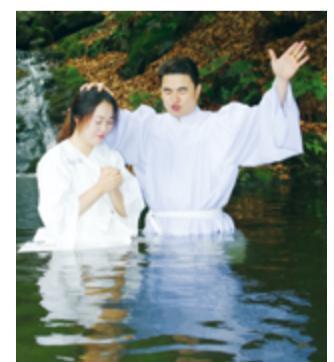
너와 함께하고 싶다

조성희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며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다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가 작년 8월부터 6개월을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신앙생활은 한국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고, 매일 열려있는 교회도 없었으며 한인교회를 찾아가야만 겨우 겨우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갈 수 있지만 한인교회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더더욱 은혜받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많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교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함께 가지고 이끌어 주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열심히 나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일곱 교회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각 일곱 교회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중간 점검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새로워져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것, 잘해온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가르쳐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침례식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상성회 기간 동안 침례를 받기 직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벅차게 알려주셨습니다. 침례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끝나고 나올 때 까지도 감사함과 벅찬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학처 사람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으니 더욱 새로이 태어난 기분이 들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내려와서 다시 일상에 돌아오니 변한 것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한 편에 나를 늘 지켜보시고 힘을 주시는 영적인 보호자가 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 청년처 조성희 |

수정처럼 맑은 삶

엄민재



| 중등처 1학년 엄민재 |

다짐했고,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침례가 끝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는 눈 녹듯 사라졌다.

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침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정처럼 맑게 살아가야겠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도 놀리지 않으며, 친구와 심하게 장난하지도 않고 생활할 것이다.

나의 침례를 축하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가족들과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최고의 예배

초등처 WORLD CAMP

2019. 8. 2 - 4

출발전에는 이렇게
시무룩했지만...

2019년 8월 2일
대서(大暑)가 막 지난 그때에 187명의 초등처 용사들이
청계산에 올랐다. 이 청계산에는 '양수리수양관'이라는 훈련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물놀이, 초청 공연, 예소리 찬양과 같은
다양한 수련 과정이 준비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신약과 구약을 배우는 '최고의 예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수련 과정을 통해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coming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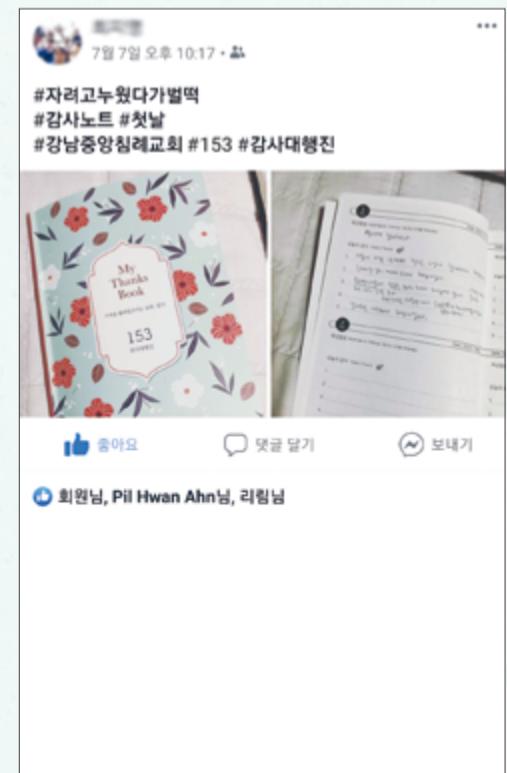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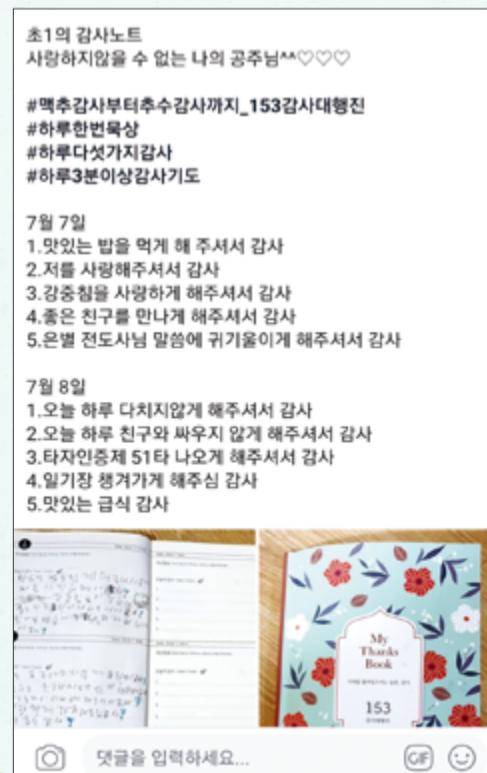
153 감사대행진



153 감사대행진 진행상황



감사편지 SNS 후기들



감사편지글

to. 장석진 장로님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을 만나 형제의 참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힘들고 고涸고 설설한 순간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 장로님 마음을 지켜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무릎으로 나가 승리합니다!
또한 우리 천국 그날까지 믿음의 우정 변치말고 말거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되길 기도합니다!

국태환 드림

to. 천호동 유치원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집사님께
제가 유치원 차를 타고 교회 다닌지도 벌써 몇 년 되었군요.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편안히 교회에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집사님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

최정수 집사 드림

to. 박벼리 선생님(초등처)
박벼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프를 준비해주셔서 수고하셨어요. 겨울 캠프도 꼭 올게요!
캠프에서 같은 조는 아니였지만 숙소에 같이 있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감동이에요. 사랑해요.

일요일에 만나요.

1학년 최예주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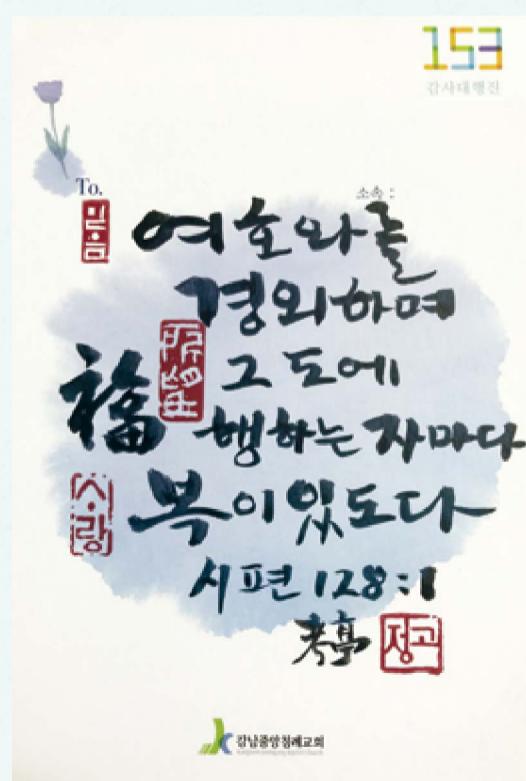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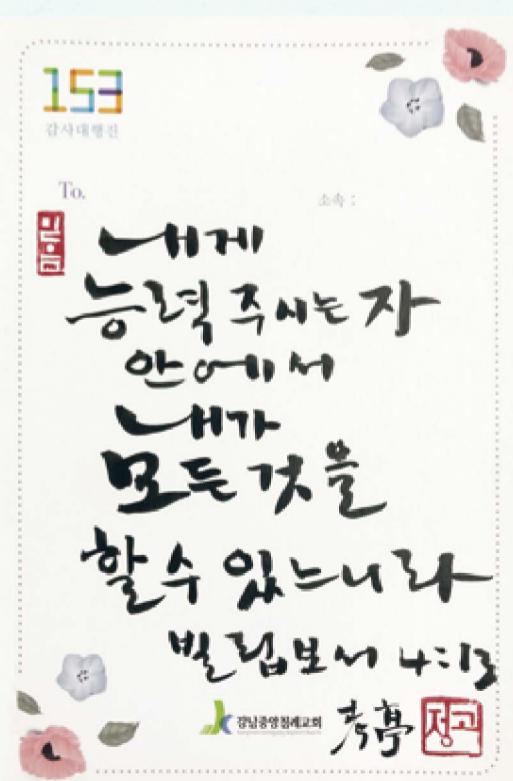
to. 김성미 권사님
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니 속스럽습니다. 평생 섬겼던 교회를 떠나 날선 곳에 와보니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막막함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만
나게 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집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서 저는 늘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끌어 주시는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은숙 권사 드림

to 김영광 목사님
김 영광 목사님 덕에
영 광의 무게 배웠으니
광 명의 천국 같 때까지 냉면 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애제자입니다.
제 인생에 목사님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하게 해주신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중등처 때 목사님 속 좀 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성경 따라잡기'
제자 윤련과 '성경 암송대회'와 같은 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문자와 짤방
을 통해 응원과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내년부터(성인이 되는) 매달 냉면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애제자 올림

감사편지 봇글씨 – 이정수 원로 장로





이번 ‘한여름의 말씀축제’는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더위로 지친 모든 성도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9분의 강사님들로 주일과 금요성령집회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었는지 다시 곱씹어 보겠습니다.

금요성령집회



인생을 살다보면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부재를 더 많이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 낙심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긴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고치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 ‘치유의 은혜’ (8월 9일)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닭이 울면 매번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있던 숯불도 그에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증거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베드로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로부터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자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국명호 목사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8월 16일)

주일 예배



주님의 길을 모든 성도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결심하고 작정하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결심하고 작정하시어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둘째, 내어 드리라! 결단 이후에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나귀는 그 주인이 내어드림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진하라!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시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힘있게 전진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내어드림 그리고 전진으로 인해 지난 2천 년간 예수님은 변함없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결심하여 작정하고, 내어드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은상 목사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8월 4일)



바울은 성도의 삶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달리기의 참가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사람만이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달리기를 위해서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달리기는 이겨야 하고 승리를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있습니다. 이 관중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천국에 면저 간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관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이 경주를 같이 하심으로 우린 완주할 것입니다.

피영민 목사 ‘우리 앞에 당한 경주’ (8월 11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숨 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름만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이유는 맡겨진 인생이며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윤대혁 목사 ‘기도하면 됩니다.’ (8월 18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감동을 받음으로 자동으로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이 은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혼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날이 오늘 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욱 목사 ‘여러 해 vs 오늘 밤’ (8월 25일)

국내 선교 편지 27사단 포병연대 마현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7사단 포병연대 마현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된 박진웅입니다.

마현교회를 섬기게 된지 이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서운한 마음도 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포병은 처음이라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포병 숫자도 생소하고, 편제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완전 이동병이 된 기분입니다. 지금 마현교회는 연대본부와 두 개 대대가 모이고 있는데, 연대본부와 각 대대별로 있는 대대본부와 3개 포대 모두 타 부대 개념이어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서먹한 상태입니다. 제가 모두에게 다가가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은 벼락을 동반한 폭우로 정전이 되고, 어어컨도 고장이 나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개 대대는 종교활동이 취소됐고, 겨우 나온 연대본부병력과 저희 가족을 합친 적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비가 더 내릴지 몰라 복귀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다른 순서들은 모두 빼고 찬송과 기도, 설교만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비가 곧 그쳤지만, 군 사역을 시작한 이후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 이었습니다.

일단 교회 시설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됐는지 예배당이 너무 더러워서 아내와 가까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이를 걸쳐서 청소만 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오래됐고, 부속 건물들도 낙후된 상태이며, 교회 장비며 비품들도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것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사단교회에서 식당을 비롯한 몇몇



곳을 수리해 주셨지만, 아직도 손 볼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사단교회와 부대에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하나하나 수리하고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섬기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품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 마현교회 박진웅 목사 |

해외 선교 편지 러시아 정Y.S / 홍Y.E

쓰드拉斯드부이제~(러시아 인사말)

테바비전센터 준공식

2018년 7월부터 건축을 시작했던 테바 비전센터가 올 6월 중순 완공되어 6월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셨던 후원자들이 한국에서부터 방문해 주셨고 현지에서 협력해주셨



테바비전 센터

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국어반 학생들이 부채춤과 연극으로 축하공연을 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테바비전센터가 교육과 복지사업을 통해 우수리스크 땅의 고려인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세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빵두유 급식사역

지난 학기도 7월 중순까지 빵과 두유를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 달 정도 방학을 한 이후 다시 8월 중순부터 빵과 두유를 만들어 공급할 것입니다. 양계장 건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을부터는 양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가을학기부터는 후원자들이 확대되어 빵을 조금 더 늘려서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NK국(보안으로 인해 나이아리를 이니셜표기)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NK국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명이 식량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식량사정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빵과 두유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Vision Trip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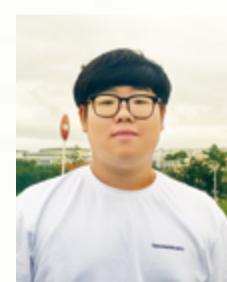
저희는 NK국&고려인 사역과 함께 Vision Trip 사역도 주된 사역으로 여기고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곳과 더불어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과 동역을 통해

NK사역도 하고 고려인 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현장까지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방문자들은 비전센터를 청소해주시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태권도 시범을 통해 섬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땅에 대한 마음을 나누어주시고 지역 곳곳을 돌아보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에 대한 보고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서로 격려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귀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길 중보해주세요.

극동연방대학 합격

큰아들 우솔이가 극동연방대학교 어문학부(영어&중국어 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만 18세가 되지 않아 부모의 싸인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11월이 되면 18세가 넘으니 곧 해결될 것들입니다. 사춘기 때에 중국에서 러시아로 온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러시아 공부도 성실히하고 검정고시도 잘 치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어려보이기만 합니다만 밖에서 뵙는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한 아들입니다.



큰아들 정우솔

아직 우솔이가 구체적인 꿈이나 비전이 확실치 않지만 언어공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에 다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상 대학에 가서 러시아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솔이가 성실히 공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고 건강한 리더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 러시아 정Y.S / 홍Y.E (우솔, 해솔, 찬솔) 선교사 |

기도제목

- 사역 -

1. 테바비전센터가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는 곳이 되도록
2. 양계장 건축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NK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4. 테바 공동체가 성령안에서 하나되도록

- 기도 -

1. 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 되도록
2. 우솔이의 대학생활 적응과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3. 아내의 건강(갑상선기능저하증, 류마티스관절염)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뜨겁게 류효정 성도

늘 그랬지만 2019년 여름의 양수리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찬양 콰이어는 말씀의 축제에 흥과 은혜를 더 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 콰이어에는 깁스를 한 성도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3교구의 류효정 성도입니다.

<<

밖에서 만났을 때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는 깁스를 풀었더라고요. 그런 부상으로는 강단에 서기가 쉽지 않은데 꼭 서야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워낙 찬양에 관심이 많고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많아서 두 달 전부터 약속하고 있었는데 부흥 성회 이를 전 직장에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스럽고 걱정되었어요.
하필 이럴 때 다치나… 강단에 서도 될까, 남의 눈에 불편하게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건 강단에 서있는 동안은 깁스를 풀고 있어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찬양이 갈급해서였죠. 저에게 찬양은 즉각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즉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인터뷰 중인 류효정 성도

<<

그 다리로 침례도 받았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면서요.(웃음) 모태신앙으로 원래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새벽기도를 나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삶을 정상으로 살 수 있는 건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다시 알았습니다. 설교 중에 담임목사님께서 “등록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건 옳지 않다” “교회 다니면서 은사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에게하시는 것 같아 등록 하게 되었구요, 등록을 하니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고, 새가족 공부를 통해 침례의 의미를 배우고서는 침례를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태신앙이 ‘못 해’ 신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일찍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계곡에 설치된 야외 침례탕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긴 했지만 비포장 산길이어서 울퉁불퉁했습니다. 깁스를 하고 걷기에는 분명 불편했을 겁니다. 모든 이의 침례식이 끝나고 맨 마지막으로 다리를 보호하던 깁스를 풀고 침례탕으로 내려갑니다. 경사지고 불편한 그 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 그리고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류효정 성도의 표정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 출판위원 김영숙 권사 |

장년교육 제자훈련



101 제자학교

주일 오후 2:00~3:00

- 전도훈련(102) * 일정: 9.1~10.13 (5주 / 김영광 목사)
- 선교훈련(103) * 일정: 10.20~11.17 (5주 / 최용준 목사)
- 기도훈련(104) * 일정: 11.24~12.29 (6주 / 김수용 목사)
- 기리더훈련(105) * 일정: 9.21~12.14 * 토요일 오전 10:00~11:00 (12주 / 최병락 담임목사)
- 최고 리더십 과정(106) * 추후 개설 / 최병락 담임목사



201 교리학교

주일 오전 11:20~12:10

- 믿음의 터(201) * 일정: 9.1~10.20 (6주 / 김요한 목사)
- 구원의 서정(202) * 일정: 10.27~12.29 (10주 / 권규택 목사)
- 소요리문답(203) * 일정: 11.24~12.29 (6주 / 이한상 목사)
- 런던신양고백서(204) * 일정: 내년 5월 개강 (20주 / 이윤섭 목사)



301 교리학교

주일 오전 11:20~12:10

- 요한복음(301) * 일정: 9.3~10.8 (6주 / 서정호 목사)
- 전도서(302) * 일정: 9.5~10.24 (10주 / 흥지승 목사)
- 로마서(303) * 일정: 10.22~11.26 (6주 / 이근도 목사)
- 신명기(304) * 일정: 10.31~12.5 (6주 / 안성권 목사)

■ 과목별 선착순 30명 신청을 받습니다.(성경학교 제외)

■ 접수 방법 : ① 교회 홈페이지

(www.kjbcor.kr → 서비스 → 행정 → 제자교육신청서)

② 본당 부스 신청서함에 접수

강중침 제자 훈련과정

새가족

101 복음학교 시작



start

101

정교인 필수

- 101 복음학교
- 102 전도훈련
- 103 선교훈련



01

제직 필수(집사)

- 201 믿음의 터
- 202 구원의 서정



02

구역장(목자) 필수

- 104 기도훈련
- 105 리더훈련



03

제직선택

- 203 소요리문답
- 204 런던신양고백서



04

영구제직(권사, 장로) 필수

- 106 기도훈련



05

새가족 간증

제 마음 문을 열고 확신을 주신 강중침 말씀



김윤정 성도와 남편 손현목 성도

가 다니던 교회에 남편을 등록시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에, 기도를 드릴 때면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돌려 우리 교회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정호 목사님에게 최병락 담임 목사님이 쓰신『부족 함』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쓰여 있는데다가 중간 중간 등장하는 목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다 읽고 나니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강중침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자, 남편은 고마워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

저는 이번 7월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올해 결혼하면서 남편이 다니는 강중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장로교단에 익숙한 저로서는 솔직히 처음에는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확한 교리의 차이도 모른 채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앞으로 섬길 교회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심 속상했던 적도 종종 있었는데, 결론은 늘 기도를 더 해보자며 상황을 마무리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제

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큰 도전이 되어 한 주간 말씀을 되새기며 살게 되었고 주일 설교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 저희 가정이 다닐 공동체를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강중침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정식 등록 교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본인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여 이번에 새가족 교육을 같이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만하며 놓치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들과, 처음에 저에게 막연한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교단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가족 환영회에서 만났던 장로님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따뜻한 환영과 관심에 좀 더 수월하게 마음을 열고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받는 4주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을 쟁겨 주신 여러 권사님, 집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날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강중침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정 성도 |

새가족 정착

주일을 기다려요,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설렘으로

2019년 4월 28일은 저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이름도 낯선 교회에 10여 년간 환자와 원장님으로 알고 지냈던 김창환 집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초대해 주셔서 어렵게 꺼낸 그 마음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새생명초청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난생 처음 듣는 담임목사님 말씀과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13남전도회 회원님들 덕분에, 주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평소에도 어머니의 소원은 막내아들인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강중침에 나온 지 2주 만인 5월 중순에 97세의 연세로 오랜 병고 끝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시고 서야 불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내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그 모습을 제대로 기억도 못 하시게 한 채 돌아가시게 한 불효가 새삼 원망스러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어머니를 향한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8주간의 새가족 교육과정을 안병국 목사님의 지도로 마치고 16주 과정의 구원의 서정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경책에서 말씀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도 할 줄 몰라 목사님의 기도 말씀에 '아멘, 아멘'만 외치고 있어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검과 흙손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안식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다음날 교회에

나갈 것을 생각하며 마치 옛날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설렘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주일을 기다리는 저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진실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윤현 성도(왼쪽 두번째째)와 가족

| 윤현(6교구) 성도 |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자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시편 27:4)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시편 26:7)

Write Your Story



- 원고모집 기간 : 2019. 9. 1(주일) ~ 9. 22(주일)
- 심사 기간 : 2019. 9. 23(화) ~ 9. 28(토)
- 주제 : 감사
- 분야 : 시, 간증, 감사기도문(교회학교 그림일기)
(작성된 원고는 1층 사무국에 제출해주세요.)

Write Your Story

“쓰임”

나의 삶이 간증으로 쓰임

나의 고백이 찬양으로 쓰임

나의 글이 문서 선교로 쓰임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문서 선교로,
간증으로 쓰임 받습니다.”

■ 시상내용

| | 순위 | 금액 |
|------------|------------------|----------------------|
| 시 | 더 쓰임 | 30만원 |
| | 쓰임 | 20만원 |
| 간증 | 더 쓰임 | 30만원 |
| | 쓰임 | 20만원 |
| 감사기도문 | 더 쓰임 | 30만원 |
| | 쓰임 | 20만원 |
| 차세대 교육국 | 그림일기 (유아, 초등) | 더 쓰임 15만원 쓰임 10만원 |
| | 시, 간증 감사 기도문 | 더 쓰임 15만원 쓰임 10만원 |
| 특별상 | 특별히 쓰임 | 5만원 |
| 감사상 | 감사로 쓰임 | 5만원 |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 | | | | |
|-----|---------|----------|---------|----------|
| 주일 | 1부 예배 | am 8:00 | 2부 예배 | am 10:00 |
| | 3부 예배 | pm 12:00 | 4부 예배 | pm 2:00 |
| | 5부 예배 | pm 4:00 | 주일 새벽예배 | am 6:00 |
| | 영어 예배 | pm 12:00 | | |
| 수요 | 1부 | am 11:00 | 2부 | pm 7:30 |
| 기도회 | 금요성령 집회 | pm 8:30 | 새벽 | am 5:30 |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 | |
|----------|-----------------|
| 교구 | 384551:31 |
| 남전도회 | 179067:38 |
| 여전도회 회장단 | 33792:07 |
| 선교위원회 | 119659:00 |
| 청년위원회 | 25489:15 |
| 교회학교 | 8449:05 |
| 총 | 총 시간 755734:36분 |

남은 시간

244265:64분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2019년 9월 1일(제200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김요한 목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김해순·김영숙·리림·박벼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kjbcgrace1976@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 은혜자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